

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0. 20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 김령석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 유대준 (044-200-2535)

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**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박차** -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도 논의 - - 한덕수 국무총리,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제 -

[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]

- 한 총리, “일회용품 사용 최소화, 올바른 재활용, 대체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”
- △(플라스틱 감량) 다회용기 및 대여·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낫지형 감축수단 활용, 다회용기 인센티브 등
- △(온전한 재활용) 배출·수거·선별체계 개선, 소각형재활용에서 물질·화학 원료 활용으로 전환 등
- △(대체재 산업육성)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확대,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분야 구체화, 플라스틱 협약 선제대응 등

[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]

- 한 총리, “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할 것”
- △(물가안정) 대형마트 집중 세일, 김장채소용품 기획전, 가전·자동차 등 제조업계별 할인전 등
- △(상생협력) 지역소상공인 플리마켓, 중소기업제품 특별전, 지역특산물 온라인 장터 등
- △(쇼핑축제) 17개 시도별 지역축제 연계, 대국민 홍보강화로 전국단위 축제분위기 조성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(목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」, 「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」을 논의했다.

< 안건 1.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>

□ 정부는 포장재·일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,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□ 이번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[플라스틱 감량]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

○ 첫째, 다회용기의 대여·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**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·서비스 인증제***를 도입한다. 택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,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.

* (제품) 텀블러, 유아용 식기류 등 / (서비스) 다회용기 대여서비스, 카페서비스(제로웨이스트) 등

○ 둘째, 배달 앱,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,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**넛지형 감량 캠페인**을 추진한다.

○ 셋째, 음료 또는 음식 주문시 **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**(2023년,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)하고, 무포장 점포,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가치소비(Meaning Out)을 촉진한다.

○ 넷째, 과대포장 기준(포장 공간 25%이내)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**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**을 검토한다.

○ 다섯째,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**음식 배달용기**에 대해서는 **두께, 재질 기준을 마련**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.

* (두께)최대 두께기준 마련, (재질)PP, PS, PET 등→단일재질 표준화, (색상)반투명 또는 투명

○ 마지막으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**처리부담금***(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)도 **현실화 로드맵**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.

* (한국) 75~150원/kg / (EU) 1,075원/kg, (이탈리아) 605원/kg, (영국) 267원/kg

② [온전한 재활용]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

-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·운반 체계를 개선한다.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,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·현대화*를 지원한다.

* 공공선별장(187개) 현대화(수선별 → AI 광학선별) ('21년) 9% → ('26년) 63%

- 아울러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평가하여,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·감면하고(기존 페트병 → 타 품목으로 확대),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.

-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(40→60%)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.

- 마지막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,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.

* (EU) '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30%(모든 플라스틱 용기)의 목표 설정

* (영국) 재생원료 30% 미만 사용한 포장재에 추가 과세('22.4월~)

③ [신산업 육성] 재생원료,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

-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 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%에서 금년 말에는 40% 이상으로 확대한다.

- 그간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산업용 퇴비화 조건인 온도 58℃에서의 분해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, 토양,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환경 유출이 불가피하여 오염,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,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, 집중 활용을 유도한다.

<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세분화 계획 >

현재	~'22년	~'23년
(기존) 산업용 퇴비화 조건 * 온도 58±2°C에서 6개월내 90% 이상 분해	(추가) 일반토양 조건(안) * 온도 20~28°C에서 1년 이내 90%이상 분해	(추가) 해양분해 조건(안) * 온도 15~25°C에서 6개월 이내 90%이상 분해

<바이오플라스틱 개념 및 특성>

구 분	생분해 플라스틱	바이오매스 플라스틱
개념	- 특정 조건에서 분해	-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
특징	- 기존 플라스틱 대비 빠른 분해 -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차이로 혼입시 재활용 저해	-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동일하여 혼입 재활용 가능 - 생산·폐기 단계 탄소배출 저감
현행 인증 기준	- 환경마크 EL 724(산업용 퇴비화 조건) * 온도 58±2°C, 산소농도 6% 이상 등에서 180일 이내 90% 이상 분해	- 환경마크 EL 727 * 바이오매스 함량 20%이상

- 또한 플라스틱 감량,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&D 지원을 확대하고, 환경산업펀드*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·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·벤처기업 투자도 추진한다.

* (~'22.9) 2465억원 펀드 조성(1,667억원 투자) →('23년) 640억원 신규펀드 조성 예정

4 [국제사회 책무이행]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

-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산업,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*·농촌 지역**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.

* (해양) 어구·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 실명제 및 어구·부표 보증금제 도입,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기인 폐기물 발생 저감 등

** (농촌)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정부지원금 인상, 불법소각·방치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

- 정부는 이번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, 신기술,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.

< 안건 2.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>

-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‘코리아세일페스타’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.
- 이번 행사 슬로건은 “사는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축제”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.

① 생활·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쇼핑축제

- 올해는 高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에 중점을 두었다.
- 코세페 기간동안 국민들이 생활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.
- 또한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채소·용품 할인행사를 개최하고, 자동차, 가전, 타이어 등 주요 제조업체도 참여하여 할인품목도 다양화했다.

② 대형유통과 중소·소상공인, 지역이 상생하는 쇼핑축제

- 아울러 코세페를 통해 중소기업,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과 함께 특별 판매행사도 준비했다.
- 대형마트, 백화점에서는 득템마켓 등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을 비롯해 중소 의류브랜드, 지역 농수산물 기획전을 추진하고, 온라인 유통채널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팔도보부상 등 온라인장터를 개최한다.

③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축제

-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쇼핑축제가 될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.

- 전국 17개 시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쇼핑, 먹거리, 즐길거리가 어울어지는 전국단위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
 - 많은 국민들이 코세페 기간동안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보유한 14,000여개의 홍보매체와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(www.koreasalefesta.kr), SNS를 통한 홍보도 확대한다.
- 오는 10.26일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계획을 공식 발표하고, 10.31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일상회복 후 처음으로 거리 행사를 겸한 코세페 개막식을 개최한다.
- 한편 코세페 기간 동안 대규모 현장 세일행사가 진행되는 만큼, 동절기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유통업계, 지자체와 방역관리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김령석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	유대준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탈플라스틱>	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00-2341)
		담당자	사무관	허 균 (044-200-2352)
<공동>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영태 (044-201-7340)
		담당자	서기관	안상혁 (044-201-7341)
담당 부서 <코세페>	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향제 (044-200-2211)
		담당자	사무관	안혜리 (044-200-2227)
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	정상용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	김애경 (044-203-4384)